

가전제품 선택, 절대기준은 '절전'

절전형 냉장고·TV·에어컨 등 전년보다 30% 이상 더 팔려

오는 7월부터 전기요금 인상을 앞두고 '절전형 가전제품'을 찾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

2일 지역 백화점 가전매장에 따르면 광주 신세계 백화점의 경우 전기를 많이 쓰는 TV와 에어컨, 냉장고를 중심으로 판매가 늘어나면서 최근 진열제품의 70% 이상을 절전형 제품으로 바꿨다.

이에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을 넘어선 절전형 냉장고는 지난해 5월 55대가 팔렸지만 올 같은 기간 동안 70대가 팔리는 등 15% 이상 판매가 늘었다. TV는 29인치 브라운관 TV보다 전력소비가 30% 이상 적다는 LED TV가 대세다. 판매되는 TV의 95%를 LED TV가 차지하며 지난해보다 30% 이상 판매율이 올라갔다. 사용할 때마다 전기요금이 '무서운' 에어컨은 절전형 제품이 아니면 팔리지 않는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사정은 비슷하다.

절전형 가전 판매율은 주 단위로 에어컨이 13~15대, LED TV 20대, 냉장고 10대가 각각 판매되며 지난해 5월과 비교, TV 15%, 냉장고 39%, 세탁기 55%, 에어컨 84%의 높은 매출 신장률을 보였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가전매장은 LED TV 판매 호조로 지난 5월 가전제품의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늘어났다.

소비자들의 '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가전업체의 화두도 단연 '절전'과 '스마트 그리드'(전기요금이 비싼 시간에 냉장고가 스스로 절전



2일 롯데백화점 8층 가전매장에서 한 고객이 절전형 냉장고를 보며 전기요금 인하 효과를 직원에게 물어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운전을 하는 등 전력요금이 맞는 운전하는 제품으로 전력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고성능 카메라 센서가 사람의 유무와 위치, 활동량까지 감지해 온도에 따라 10~160%까지 압축기 운전을 스스로 조절해 0.1도의 미세한 온도조절까지 가능한 초절전 시스템 에어컨을 선보였다.

LG전자도 슈퍼 3D 입체 냉방방식을 이용한 2011년형 에어컨을 통해 기존 에어컨 대비 냉방속도는 3배로 높이고 전력효율은 88% 가량 줄인 제품을 내놨다.

여름철 사용빈도가 높은 세탁기도 세탁시간과 전기 사용량을 반으로 줄인 제품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의 하우젠 버블에코 세탁기는 기존 드럼세탁기에 비해 세탁시간을 반인 55분으로 줄였다. LG전자의 트롤 6모션 세탁기도 6가지 손빨래 동작을 구현, 시간과 전기요금을 반 이하로 낮췄다.

롯데백화점 가전매장 관계자는 "가전제품 라벨에 쓰인 에너지 효율에 따라 1등급과 5등급 제품은 전기요금이 1년에 3만~5만원까지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요즘은 고객들이 가전제품 구입에 앞서 성능보다는 '절전'에 대해 묻는 일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신세계 스페셜 파티

오늘 콘서트·경품 등 다채

광주 신세계백화점이 3일 '고객 감사의 달'을 맞아 단 하루 '추억의 스페셜 파티'를 진행한다.

추억의 스페셜 파티는 지금까지 진행했던 모든 이벤트를 한자리에 모았다. 이벤트의 하이라이트인 가수 김원준의 미니콘서트가 이날 오후 6시 1층 광장에서 열리고, 이어 치어리더 공연도 마련됐다.

1층 광장에서는 60년대 교복과 책상 등 옛날을 추억할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가 전시된다. 4~7층 매장에서는 클래식 앙상블 공연 등이 열리고 오후 5시30분에는 바텐더들의 환상적인 카테일 쇼가 선보인다.

아이들을 위해 미니 서커스 공연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닥트·롤테이밍 등도 준비됐다.

연인들을 위해 따로 공함 등 고객 참여 이벤트도 진행되며 오후 7시부터 1층 광장에서는 선글라스와 구두, 압력솥, 원피스 등 20여가지의 상품을 정상가보다 60% 이상 저렴한 가격에 경매하는 이벤트도 열린다.

이날 구매 고객은 오후 5시부터 응모권을 받아 오후 8시 20분 즉석 추첨을 통해 1등은 100만원 상당의 맥북 에어 노트북, 2등은 제주신라호텔 2박 3일 숙박권, 3등은 신세계 상품권 30만원 등이 제공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뽀로로, 에버랜드에 3D로 남시오!

내일 3D 전용극장 오픈

삼성에버랜드는 오는 4일 테마파크로는 처음으로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3D 전용극장을 오픈하고 극장관 뽀로로 3D 영화인 '뽀로로 3D 어드벤처'를 개봉한다고 2일 밝혔다.

에버랜드를 방문하는 주이용객이 초등학교 입학 전후인 3~7세 사이의 어린이를 둔 부모로, 뽀로로에 열광하는 어린이들과 곁집다는 점에 착안했다고 에버랜드는 설명했다.

에버랜드는 이를 위해 파크 내 개봉관이던 빅토리아 극장을 3D 영화 상영에 적합하도록 좌석 규모를 1000석에서 460석으로 줄였으며 디즈니 등 선진테마파크에서만 운영하는 '프리쇼'(영화배경을 사전 설명해주는 기대감)공간도 마련했다.

한편 올해로 개장 35주년을 맞는 에버랜드는 지금까지 1억6000만명이 다녀가는 등 입장객 기준 세계 10위 테마파크로 발돋움 했으며 국내 테마파크 가치 평가에서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내년부터 은행 경영평가 15단계 세분화

금융감독원은 은행 경영실태평가 기준(CAMELS)을 세분화하고 위험관리를 강조한 새 기준(CAMEL-R)을 만들어 내년부터 13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의 'CAMELS'는 은행을 우수, 양호, 보통, 취약, 위험 등 5개 등급으로 분류했지만 대다수 은행이 1~2등급(우수 및 양호)에 몰려 은행 간

별력이 떨어진다라는 점에서도.

금융원이 새로 만드는 'CAMEL-R'은 5개 등급마다 '+, 0, -'로 3단계 변별성을 뒤 모두 15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또 자본(C), 자산(A), 경영관리(M), 수익성(E), 유동성(L)에다 기존의 위험 민감도(S)를 위험관리(R)로 대체하고 유동성과 위험관리의 비중치를 5%포인트씩 높이는 대신

영관리와 수익성의 비중치를 5%포인트씩 낮춘다.

금감원은 유동성 평가 항목에서 단기대출비율을 제외하는 대신 구조적인 유동성을 점검하는 예대율과 중장기외화자금조달비율을 새로 집어넣을 계획이다.

경기의 좋고 나쁨에 따라 대출이 늘거나 주는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해 여신정책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지배구조의 안정성과 성과보상체계의 적정성을 비계량 항목에 신설한다. /연합뉴스